

# 교황 첫 회고록 “나도 아름다운 여인에 흔들린 적 있어”

### ‘신의 손’ 마라도나에겐 “어느 쪽이 죄지은 손이나” 물어 “모욕에는 귀 막아”...“옛 아르헨티나 정부, 내 목을 원해”

“신학생 시절 삼촌 결혼식에서 만난 한 여인에게 매료됐습니다. 그녀는 너무나 아름답고 영리해서 머리가 핑 돌 정도였죠. 일주일 동안 그 여인의 모습이 계속 머릿속에 떠올라 기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최근 즉위 11주년을 맞은 프란치스코 교황의 내밀한 고백이다. 교황이 여인의 유혹을 이겨내지 못했다면 전 세계 13억 가톨릭 신자들은 남미 최초의 교황을 만나지 못했을지도 모른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첫 회고록 ‘인생’ 역시 통째로 본나의 이야기로 가득 차 있다. 올해 87세인 교황은 이 책에서 이탈리아 언론인 파비오 마르케스 라고나와

인터뷰 형식으로 자신에게 깊은 영향을 준 일화를 소개한다.

AFP 통신이 16일(현지시간) 교황의 첫 회고록에 담긴 내용을 발췌해 미리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책에는 교황이 한 여인 때문에 사제의 꿈을 접을 뻔했던 일화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출신으로 축구 광이었던 그의 축구 사랑을 보여주는 세세한 에피소드가 가득 담겨 있다.

교황은 특히 1986년 멕시코 월드컵에서 고국 아르헨티나의 우승을 이끈 볼세체의 축구 선수 디에고 마라도나에 대해서는 한 장(章) 전체를 할애했다.

마라도나는 당시 잉글랜드와의 8강



연설하는 프란치스코 교황 프란치스코 교황이 16일(현지시간) 바티칸 바오로 6세 홀에서 제수 밤비노 병원 경영진과 의료진, 환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교황청 기부 100주년 기념식에서 연설하고 있다. /AFP=연합뉴스

전에서 손으로 결승골을 넣으면서 ‘신의 손’이라는 유명한 별명이 붙었다. 교황은 “몇 년 전 바티칸에서 교황은 로서 마라도나의 알현을 받았을 때 농담 삼아 그에게 ‘어느 쪽이 죄지은 손이냐고 물었다’고 말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은 2013년 즉위 초부터 가톨릭교회를 더 포용적으로 변모시키려고 노력했다. 교황의 개혁적인 정책은 교황청 내 강경 보수파의 거센 반발을 불렀다.

지난해 12월에는 동성 커플에 대한 가톨릭 사제의 축복을 승인해 보수파의 공격을 받았다. 교황은 책에서 동성 커플을 축복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결정을 다시 한번 옹호했다.

그러면서 최악의 모욕에는 귀를 막고 있다고 했다. 그는 “나에 대해 말하고 쓰인 모든 것을 들여다본다면 매주 심리학자의 상담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한탄했다.

그는 흑자들은 교황을 “유럽의 마지막 절대 군주”로 묘사한다면 “법정 논쟁과 계략이 종종 있지만 그런 계략은 패배하고 버려야 한다”고도 전했다.

교황은 아울러 자신이 베네딕토 16세

전 교황의 뒤를 이어 스스로 물러나길 원하는 비판자들이 적지 않지만, 자신은 건강하다며 자진 사임은 “먼 가능성”이라고 밝혔다.

교황은 아르헨티나 군사 독재 시절인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예수회 아르헨티나 관구장으로서 자신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야기했다.

군사독재 종식 뒤 일부에선 그가 정권의 인권유린을 묵인하는 등 군사정권의 협조자였다고 주장했지만, 교황은 이를 부인했다.

그는 “많은 사람이 당시 아르헨티나 정부가 내 목에 올가미를 씌우려고 최선을 다했지만 ‘내가 깨끗해서 증거를 찾지 못했다’고 사적으로 전해왔다”고 했다.

교황의 첫 회고록은 다음 주에 이탈리아, 영어, 독일어, 프랑스어판으로 출간될 예정이다. /연합뉴스

## 가자지구 구호트럭 또 참사...20명 사망 두고 진실 공방

### 현지 보건부 “이스라엘군, 구호품 기다리던 주민들 표적 공격”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또 다시 ‘구호 트럭 참사’가 발생한 것을 놓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 책임 공방을 벌이고 있다.

15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에 따르면 전날 오후 가자지구 북부 가자 시티의 쿠웨이트 로터리 근처에서 구호품 수송 트럭을 기다리던 주민들이 공격받아 최소 20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

가자지구 보건부는 이스라엘군이 이곳에서 인도적 지원을 기다리는 주민들을 표적으로 삼아 공격해 이 같은 사상자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스라엘군은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들이 구호 트럭이 도착하기 약 1시간 전에 구호품을 기다리던 민간인들에게 발포했다고 반박했다.

이스라엘군은 또 “군중이 (도착하는) 구호 트럭을 약탈하기 시작하자 팔레스타인 무장 괴한들이 계속 총을 쏘다”며 “많은 민간인이 트럭에 치였다”고 주장했다.

이스라엘군은 예비 조사 결과 구호품 수송대에서 가자지구 민간인들을 향해 탱크 발포나 공습, 총격을 가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에도 비슷한 참변이 있었다. 당시 가자시티에 도착한 구호품 트럭에 주민들이 몰리면서 100명 넘게 숨지고 수백명이 다쳤다.

팔레스타인 측은 이스라엘군의 무차별

총격으로 인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이스라엘군은 희생자 대부분이 구호품을 가져가려는 인파에 짓밟혔다고 반박했다.

두 번째 구호 트럭 참사와 관련해 누가 구호품을 보냈는지, 호위는 누가 했는지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은 구호 트럭 31대의 통행을 용이하게 했다고 밝혔을 뿐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목격자들은 사고 현장에 포격이 있었다고 말했다.

사진작가 모하마드 하무데는 이스라엘군이나 군중을 향해 발포한 무기를 보지 못했지만 멀리서 이스라엘군이 포화를 퍼부어 사상자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 이스라엘군 포격으로 추정되는 ‘구호 트럭 참사’가 또 다시 발생해 20명이 숨지고 150명 이상이 다쳤다. 사진은 가자지구 라파에서 주민들이 구호 식량을 배급받고 있는 모습. /AP=연합뉴스

## 황당한 의료사고...오진으로 멀쩡한 자궁 제거

### 암환자 샘플과 착각...병원, 공식 사과

홍콩에서 한 병원이 실수로 50대 여성의 멀쩡한 자궁과 나팔관, 난소 등 생식기관 제거 수술을 한 황당한 의료사고가 발생했다.

16일 현지매체에 따르면 이 사고는 홍콩 위안랑구의 한 공립병원에서 발생했다. 50세 피해 여성은 지난 1월5일 폐경 후 질 출혈 치료를 받기 위해 이 병원을 찾았다. 의료진은 여성의 자궁과 주변 조직에서 샘플을 채취해 검체를 병리과로 전달했다.

이 여성은 같은 달 18일 자궁내막암 진단을 받았고 약 일주일 후 이 병원의 자매병원에서 자궁, 나팔관, 난소, 골반 림프절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수술은 별다른 문제 없이 끝났고 환

자는 4일 후 퇴원했다. 문제는 그 뒤에 발생했다.

병리와 한 의사가 제거된 조직을 검사했을 때 암 징후를 발견하지 못하자, 추가 조사가 시작된 것이다.

조사 결과 이 여성이 검체를 채취한 지 30분 뒤에 7세 여성 환자가 조직검사를 받았다는 사실이 확인됐다. 두 검체 모두 같은 날 병리과에 전달됐다.

CCTV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이 여성 샘플과 암 진단을 받은 7세 환자 샘플이 뒤섞인 탓에 피해 여성에게 잘못된 진단이 내려진 사실이 확인됐다.

병원측은 기자회견에서 “이 사건이 환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을 알고 있다”며 “환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와 위로를 전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 “알코올 중독증, 자살 위험 높다”

음주를 조절할 수 없는 알코올 중독 증인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으면 자살 위험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캐나다 중독·정신건강 센터 정신건강 정책 연구실의 새년 랭 박사 연구팀이 총 3천787만6000명이 대상이 된 24편의 관련 연구 논문을 종합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이 밝혀졌다고 헬스데이 뉴스가 보도했다.

전체 연구 대상자는 연령대가 15세에서 65세 이상이고 남성이 50.7%, 여성이 49.3%였다.

전체적으로 알코올 사용 장애가 있는 사람은 없는 사람보다 남녀 구분 없이 자살률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연합뉴스

상무지구 2,000평 실내스포츠공원

# 파라드시티

헬스

14일동안  
CALORIE BAR  
launage for Diet - Detox care  
DANIEDEL  
Skin & Body Aesthetic  
THE 14 DAYS  
Beauty Solutions

테니스

골프

062 374 0088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64  
영무에디움 상가 2층

**HDK Korea**

(주)에이치디코리아는 DJI 컨슈머드론 전문판매 및 핸드헬드 전문판매 업체로서 차별화된 서비스로 고객만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다양한 DJI 드론 및 카메라, 짐벌 제품 등 체험해보세요.”

임동점    광주 북구 금남로 24 | Tel. 062) 522-2000

금호빌점    광주 서구 군분2로 54 | Tel. 062) 350-8397